



미 증시, 미 신용등급 하향에 투자심리 위축되며 급락

미국 증시 리뷰

2 일(수) 미국 증시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미 국채 10 년물 금리 상승 및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 민간고용 서프라이즈 등이 차익실현 빌미로 작용하며 시총상위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다우 -0.98%, S&P500 -1.38%, 나스닥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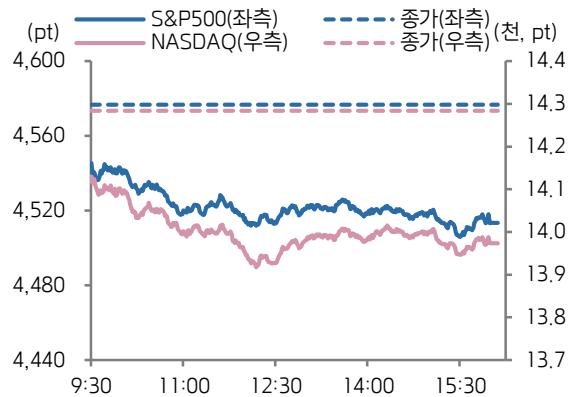
전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 'AAA'에서 'AA+'로 하향, 지난 5 월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후 3 개월 만에 나온 결정.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 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했다"라며 특히 미국 정치권의 부채한도 이슈 역시 이번 등급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

이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피치의 돌발적인 결정을 비판, 하향 조정에 쓰인 데이터가 옛날 것이라며 현재 미국 경제의 강함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 골드만 삭스, JP 모건 등 외사에서는 2011년 8 월 S&P 의 신용등급 하향 결정할 당시와는 경제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이 새로운 재정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쇼크매도는 있어도 지속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 S&P는 당시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한 후 지금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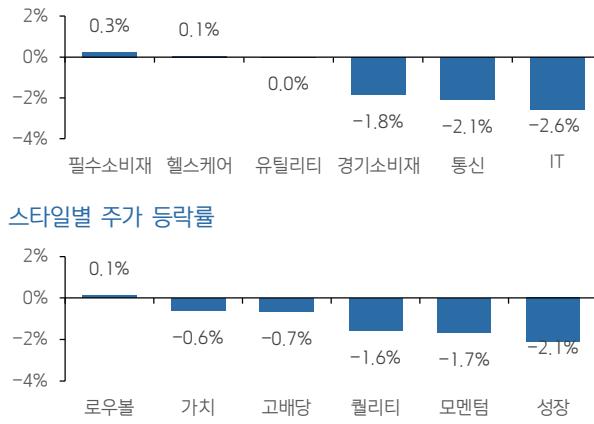
미국 ADP 7 월 민간 고용은 전월대비 32.4 만명(예상 17.5 만명, 전월 45.5 만명) 증가하며 예상치 큰폭으로 상회. 레저 및 접객 부문에서 20.1 만건, IT 3.6 만건, 무역, 운송 및 유트리티는 3 만건 증가하는 등 서비스 부문에서 30.3 만건 증가. 반면 제조업에서 3.6 만건 감소, 건설업 9000 건 증가에 그치는 등 제조업 경기 침체 시사. 7 월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6.2%를 기록해 전월의 6.4%보다 둔화. 집계측은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으며 건강한 노동 시장이 가계 지출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고 언급.

업종별로 필수소비재(+0.3%), 헬스케어(+0.1%)만이 상승한 가운데 IT(-2.6%), 통신(-2.1%), 경기소비재(-1.8%) 약세. AMD(-7.02%)는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AI 매출 급증 및 올해 4 분기에 AI 칩 MI300X 칩 출시를 발표하며 시간외에서 2.5% 상승했으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급락 마감. CVS 헬스(3.33%)는 2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며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16.47	-1.9%	USD/KRW	1,298.11	+1.12%
코스피 200	343.80	-2.05%	달러 지수	102.62	+0.31%
코스닥	909.76	-3.18%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479.17	-4.29%	USD/CNH	7.20	+0%
S&P500	4,513.39	-1.38%	USD/JPY	143.32	+0%
NASDAQ	13,973.45	-2.17%	채권시장		
다우	35,282.52	-0.98%	국고채 3년	3.670	+2bp
VIX	16.09	+15.51%	국고채 10년	3.780	+4.7bp
러셀 2000	1,966.83	-1.37%	미국 국채 2년	4.877	-2.5bp
필라. 반도체	3,711.60	-3.8%	미국 국채 10년	4.078	+5.5bp
다우 운송	16,380.25	-0.91%	미국 국채 30년	4.175	+8.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36.50	-1.61%	WTI	79.49	-2.31%
MSCI 전세계 지수	692.02	-1.65%	브렌트유	83.31	-1.88%
MSCI DM 지수	3,000.54	-1.58%	금	1975	-0.19%
MSCI EM 지수	1,019.99	-2.21%	은	23.87	-1.87%
MSCI 한국 ETF	65.48	-3.08%	구리	384.35	-1.6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3.0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2.3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8.3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 일정부분 기반영됐을 가능성
2. 웰컴의 시간외 주가 하락이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
3. 초전도체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증폭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8 월에도 7 월과 같은 랠리를 전개할 것이라는 기대감” vs “과매수권 진입,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한 조정 우려” 등 기대와 불안이 상존했으나, 전일 주식시장의 급락, 변동성 지수의 급등은 후자쪽에 손을 들어준 모습. 이 같은 증시 조정의 명분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소식이 제공했음.

S&P, 무디스와 함께 3대 신용 평가사로 불리는 피치가 부채한도 협상 난항 등으로 인한 재정 거버넌스 약화,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 비율 증가 등으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린 상황. 이는 주식시장에서 2011년 8월 S&P 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만들어낸 패닉의 재연될지 모른다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있는 모습.

당시 금융시장의 상황은 혼돈 그 자체였는데, 2011년 8월 5일(금) 미국 장 마감 후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강등한 다음 거래일인 8월 8일(월)부터 코스피는 3.8% 급락, S&P500은 6.7% 급락, 나스닥은 6.9% 급락. 이후 저점을 확인할 때까지의 일자를 계산해보면 코스피는 34거래일(9월 25일에 저점), 나스닥은 40거래일(10월 3일에 저점)이 소요되는 등 그 여진은 약 1개월 이상 지속됐던 경험이 있음.

과거의 사례를 미루어보아, 이번에도 1 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고 가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하지만 2011년에는 기업 실적이 하향되고 있었으며 남유럽 재정위기가 진행중이었던 반면, 현재는 기업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는 중이라는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 또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전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가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당시와 차별화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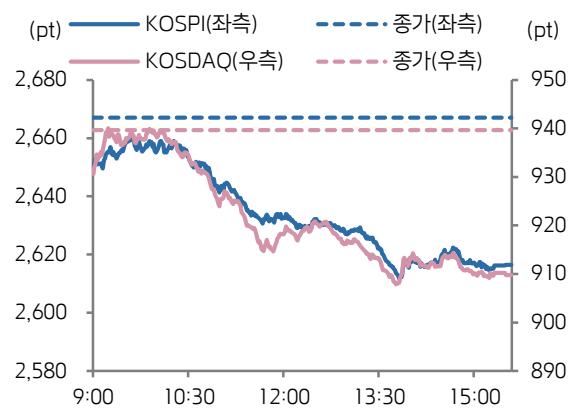
연이은 랠리로 인한 피로감, 지수 레벨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이 누적되고 있었기에, 이번 신용등급 강등 사태의 여진이 채권과 외환시장 경로를 통해서 증시에 단기 차익실현의 명분을 제공할 수는 있음. 하지만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도한 위험 회피 전략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 더 나아가, 지금보다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신용등급 강등발 급락장은 신규 진입자들에게 이후의 상승장을 누릴 수 있는 매우 기회가 됐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11년 9월 말 이후 ‘11년 12월말까지 코스피는 3.2% 상승, 나스닥은 7.9% 상승, 1년 뒤 ‘12년 12월말까지 코스피는 12.8% 상승, 나스닥은 25.0% 상승).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 따른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도 속 국내 수출 둔화 소식, 2 차전지주 차익실현 물량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 마감(코스피 -1.9%, 코스닥 -3.2%).

금일에도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고밸류에이션 성장주 중심으로 한 미 증시 급락,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로 인한 웰컴의 시간외 6%대 내외의 주가 하락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다만 전일 국내 증시에서 일정부분 선반영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주가 급락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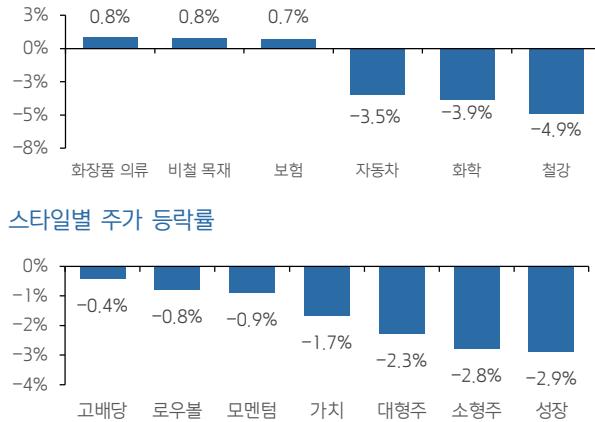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지난주부터 2 차전지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2 거래일 동안 이들 업종에서 수급이 일부 이탈해 초전도체 테마 관련주로 이동하면서 관련주식들의 주가 폭등세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 주식시장에서는 2 차전지주 급등락의 피로감이 제 2 의 2 차전지주, 차기 급등주를 찾고자 하는 욕구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여전히 과학계에서는 검증단계에 있는 만큼 개발 성공 여부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 아직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의 성격이 내재된 만큼, 초전도체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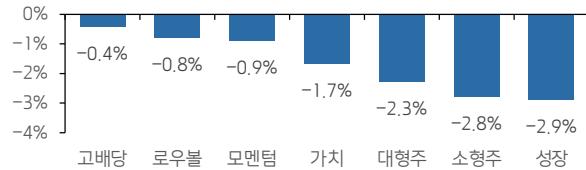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